



金 洪 燦 / 廣林電子工業(株) 社長·本會 理事

## 병인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

병인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새해 설계를 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송년특집을 쓰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86년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사다난했던 해인 것만은 사실이다. 외적으로는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또한 이른바 3低 현상이라 하여 한국경제는 뜻밖의 호황을 맞았다. 원유가의 급격한 하락과 국제금리의 저하, 엔화 강세로 수출은 호전된 반면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한 해였다고 본다.

중소기업으로서 통신기기 전문 메이커인 우리 회사로서는 주요 부품 다량을 일본에 수입의존하고 있는바 「엔高」에 따른 원자재 상승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또한 통신방식의 현대화와 통신시설의 대량공급 등으로 통신산업 부문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혁신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으나 기술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고 각종 기술정보 등의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신제품의 개발 및 품질의 개선 등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서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산업용 통신기기 메이커로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하는 同社로서는 그간 농어촌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송로집선장치(Digital Line Concentrator, TS-128)를 한국

전기통신공사(KTA)에 약 800 System을 공급하여 농어촌 전화 보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 모든 통신장비가 전자화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회사의 혼성집적회로(Hybrid-IC) 생산기술이 관계기관 및 업계에서 인정받아 1977년 12월에는 한국전자통신주식회사(현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의 전자식 교환기용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1979년 4월에는 Belgium의 BTM사와 Hybrid IC생산기술 전수제약을 맺고 생산시설의 신규투자는 물론 기술진의 해외 현지 교육을 실시하여 1981년 5월부터 전자교환기(MIOC�)용 Hybrid IC를 전량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금년까지 다품종을 대량 공급하였고 통신기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음향기기, 가전기기, 차량용 등에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IC에 비하여 생산시설 설치비가 소규모이며 개발기관과 양산리드 타임이 2개월 안에 마칠 수 있어 수요자의 요구가 다중 소량인 통신용 부품에 적합하며 대부분 조립을 위주로 하는 제조공정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제품의 표준화가 어렵고 따라서 제조공정의 조건이 다양하여 양산체제를 갖추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기반으로서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우리 회사에서 창업 당시부터 생산하여오던 텔렉스 단말기기(인쇄전신기)의 생산기술 축적을 기반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의 기술 전수로 워드프로세서, 텔렉스를 개발하여 시판 준비중에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정보통신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온 데이터 전용회선은 아날로그 방식으로서 모뎀을 사용하여 1,200~2,400bps 데이터 전송을 주로 하고 있으나 고속 양질의 데이터 회선 이용자를 위하여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사용되는 DSU(Date Service Unit)를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신뢰성 시험을 끝내고 KTA(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규격화하여 양산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87년도에는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기통신 6차5개년계획 동안에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통신산업 발전에 임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에는 전자공업의 구조가 통신산업용 산업기기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산업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산업이 신장될 것이고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발전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다음과 같다.

## 1986年度 電子産業을 總決算한다\*

“원유가의 급격한 하락과 국제금리의 저하, 엔화 강세로 수출은 호전된 반면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한해였다고 본다. 또한 미래에는 전자공업의 구조가 통신산업용 산업기기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와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산업이 신장될 것이고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첫째, 부품공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량과 기술수요를 예고하여 계획생산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부품의 특성별로 전문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통신기기의 품질향상과 국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기능을 발전시켜 세계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내개발 제품의 구매를 보장하여 개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셋째, 통신기술 및 장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해외 경쟁 가능 품목을 발굴 지원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과 업체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전기통신 6차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묘년 새해에도 우리 전자산업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